

배양검사 음성인 복막염 환자에서 발견된 항문주위 농양

인하대의과대학 인하대병원 신장내과¹, 연변대학교병원 신장내과²

장현일¹, 진해평², 이시내¹, 황선덕¹, 송준호¹, 김문재¹, 이승우¹

Perirectal Abscess Camouflaged as Culture Negative Peritonitis in a CAPD Patient

Hyunil Jang¹, Haifeng Jin², Si Nae Lee¹, Seun Deuk Hwang¹
Joon Ho Song¹, Moon-Jae Kim¹, Seoung Woo Lee¹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¹, Incheon, Republic of Korea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², Yanbian University Hospital, Yanji, Jilin Province, China

Introduction: 복막염은 복막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복통과 고열 등을 동반하는 합병증이다. 저자는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던 복막염에서 발견된 항문주위 농양을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Case: 62세 여성환자, 내원 수 시간 전부터 지속되는 복부 전반에 걸친 복통을 주소로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신장내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말기신부전에 대하여 지난 12년 동안 신장대체요법으로 복막투석을 해 왔으며, 약 5년 전 당뇨 망막증으로 양측의 시력을 손실이 있었다. 반복적인 복막염으로 복막투석의 한외여과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엑스트라닐(7.5%)을 통하여 투석을 진행하고 있던 자다. 입원 당시 환자의 체온은 38.5도였으며, 신체 검진결과 복부 전반에 걸친 압통 및 반발압통이 관찰되었다. 혈액검사결과에서는 백혈구 12,050 개/ul, 헤모글로빈 8.8 g/dL, 혈소판 298,000 개/ul, C-반응단백 0.53 mg/dL, BUN 22.9 mg/dL, Cr 7.77 mg/dL 관찰되었다. 복막투석액은 시진상 탁하였으며, 복막 투석액의 분석결과 백혈구수 580개/mm³ (neutrophil: 89%)으로, 복막염 의증 하에 isepacin 및 cefamezin 을 복막투석액에 섞어 6시간마다 투석을 진행하였고, 치료 시작 48시간 이내에 환자분의 복통 및 고열은 해소되는 소견을 보였다. 추시 관찰을 위해 시행한 투석액 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관찰되지 않았고, 투석액의 배양검사에서도 균배양 되지 않아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였다. 입원 6일째, 환자의 체온은 1일에 0.3-0.5도씩 기저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입원 10일째에는 최고 38.4도에 도달하였다. 복막투석액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백혈구 수는 0개로 확인되었고, 반복적인 배양검사 또한 음성이었다. 환자는 간간히 발생하는 오한에 대하여서만 호소하였고, 특이 증세가 없었으며,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도 폐렴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의 고열에 대한 원인검사를 위하여 갈륨-스캔을 고려하였으나, 검사가 진행되기 전, 입원 15일째 갑자기 고열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고, 쇼크에 대한 치료 중 환자의 의식 감소 소견 보임 신체 문진 결과 항문의 병변이 추가로 발견되어 응급으로 시행한 복부골반 CT촬영에서는 직장주변의 농양이 관찰되었으며, 감염의 범위는 항문주위의 근육 및 골반근육의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 있었다. 심한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는 불안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응급 수술은 국소 마취하의 배농 및 절개로 제한되었다. 결국 환자는 2일 후 사망하였고, 추후 확인된 배양검사(배농)의 결과에서는 Enterococcus faecalis가 관찰되었다

Conclusion: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에서 복막염이 발생시 투석과 관련된 복막염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복강내의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여야만 한다.

Key Words: 복막투석, 복막염, 항문주위농양

Peritoneal dialysis, Peritonitis, Perirectal abscess